

마을공동체미디어 전국 연대의 첫걸음을 위하여

최성은(전주시민미디어센터)

1. 진전된 논의의 필요성

● 마을공동체미디어 전국 연대조직에 대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함

- 올해 5월 (가칭) 전국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준비모임 이후 3번의 전국 활동가 회의와 9월 워크숍이 진행되었음
- 전국단위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조직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7년부터 제기되어왔음¹⁾
- 지난 9월 전주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전국조직 준비모임을 발족하고자 했으나 보류되었으며, 전국조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함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출발점으로 되돌아감

● 논의의 진전을 위해 필요성과 전국 네트워크의 구축과 실행 방향의 구체적 틀이 제안되어야 함

- 9월 전주 워크숍을 통해 확인한 바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전국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주체와 지역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다는 것임
- 또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, 반대로 전국연대조직의 상과 실행방안이 분명하지 않아 전국연대의 필요성이 체감되지 못하기도 함
- 마을공동체미디어 전국연대의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아디어수준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

2. 왜 마을공동체미디어 전국 연대가 필요한가?

1) 전국 현황 공유와 논의 체계 필요

-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
- 제도적 측면에서도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. 전북, 제주, 군산시, 서울시, 서울 노원구, 서울 성북구, 대전시, 대전 동구, 인천 연수 등 여러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, 전주, 수원, 부산, 광주 등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거나 공론화 작업을 시도

1)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조직 논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9월 전주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체미디어워크숍자료(송덕호 발제) 참조

<표 1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 현황>

지역	내용	비고
전북	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	제정
군산	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	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	
서울	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	
서울 노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	
서울 성북	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	
대전	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	
대전 동구	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	
인천 연수	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	
전주	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(안)	
수원	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- 수원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차원에서 조례 제정 준비중	논의중
부산	부산시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 지원 조례	제정추진 시도
광주	광주 마을미디어활성화 조례	제정추진 시도

- 전국단위의 현황과 사례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되거나 공유되지 못함
- 지역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과 환경의 편차 발생
- 마을공동체미디어 영역 성장세 둔화와 사회적 위상(정부 정책적 측면)이 뚜렷하지 못함
- 방송분야와 연관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경우 플랫폼의 제약,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제도적 인정을 받는 공동체방송으로 나아가고자 하나 정책적으로 막혀 있음
- 마을공동체미디어 영역의 활성화와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적 상황 공유와 논의 체계가 필요함

2) 마을공동체미디어 다차원정체성과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연대조직필요

-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다원적정체성을 지니고 있음

<공동체미디어의 다원적 정체성>

	미디어 중심	사회 중심
공동체미디어의 자율적 정체성 (본질주의적)	관점 1 : 공동체에 기여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"> 관점 3 : 시민사회의 부문 </div> 관점 4 : 리좀(rhizome)
다른 정체성과의 관계 속 공동체미디어 정체성 (상대주의적)	관점 2 : 주류에 대한 대안	

<출처: Nico Carpentier(2007)>

● 공동체와 미디어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원적²⁾

- ①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(media for community): 미디어는 공동체의 형성, 생존, 성장, 회복을 위한 기반
- ② 공동체의 미디어(media of community): 공동체가 자신(만)의 미디어를 소유하는 과정과 결과에 주목. 누군가가 먼저 집단의 공동체성을 지각하고, 그것을 계속해서 잡아두고 묶어둘 장치로서 미디어를 활용
- ③ 미디어를 위한 공동체(community for media): 미디어가 공론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공동체적 조건에 대해 주목.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하부 구조(구성원, 네트워크, 공동체가 갖는 물적, 상징적, 문화적, 사회적 자본, 사회 규범, 관습 등)가 중요
- ④ 미디어의 공동체(community of media):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능해진 새로운 공동체 경험에 주목.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에서 가능해진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경험이 가능해진 상황에 주목
- ⑤ 미디어에 대립하는 공동체(community against media): 공동체와 미디어의 대립 상황을 공동체를 주체로 설명.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류미디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
- ⑥ 공동체에 대립하는 미디어(media against community): 미디어는 종종 사회관계, 신뢰, 유대 같은 공동체의 기반을 방해하거나 허물 잠재성을 가짐. 미디어 기술이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 유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 등에 주목

● 마을공동체미디어 주체와 유형 다원성

-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일상의 장소로 들어오면서 참여 주체가 활동가중심에서 시민 중심이 되고 범위도 확대
- 미디어 유형 역시 다양화
- 참여주체와 유형의 확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범위와 관련 이슈의 다양성을 가져옴
-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으로 학계 차원의 관심과 연구도 증가

2) 미디어와 공동체(2018), 한국방송학회

●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둘러싼 정책 주체와 이슈의 다원성

-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각 영역에서 별도로 진행되어 왔던, 공동체미디어, 시민미디어, 마을공동체 활동, 사회적 경제, 마을지원 정책의 결합으로 이루어짐
- 지방분권, 도시재생, 미디어교육, 생활문화 등 여러 영역과 부처와 연관.

=>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다차원적이다. 정체성, 주체, 정책, 형태, 관심사도 다양하다.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

3)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.

●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공동대응이 필요

- 공동체라디오, 마을미디어에 대한 정부정책,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통합적 대응 필요
- 범 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필요
- 영국의 경우 공동체라디오를 비롯한 공동체미디어가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 Community Media Association이라는 전국적 조직이 주요한 역할 수행. CMA의 역할은 당시 커뮤니티 활성화, 사회적 배제, 제3섹터 등 정부의 정책영역에서 공동체라디오를 비롯한 공동체미디어를 주요한 의제와 수단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파트너 역할 수행

3. 마을공동체미디어 전국 연대 조직 추진 방향성

1) 조직 형태

- 지난 논의 과정에서 연대유형에 대해 느슨한 연대의 네트워크와 법적위상을 갖는 협회 형태 제시됨
- 현재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참여하는 주체의 다원성과 관련 이슈를 고려하면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-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

2) 네트워크 조직 구성

① 참여주체

- 마을공동체미디어단체, 공동체라디오, 미디어센터, 중간조직, 전문가그룹, 지역별네트워크, 학회 등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 참여. 단 개별 참여자의 경우 준회원 또는 전문가그룹으로 참여

② 조직구성

- 공동위원회: 참여단체 대표
- 실무(집행)위원회: 참여단체 중 네트워크 실무와 제반 운영사항을 논의하는 역할

구성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영역, 지역을 안배하여 일정 수를 제한.

- 간사단체: 실무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

3) 추진절차

- 준비기 : ~ 2020년 5월.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. 지역별 공감대와 네트워크 추진전략을 세부화하는 작업.

- 실행기: 2020년 6월~. 네트워크 공식발족

4) 네트워크 활동

① 현황공유

- 각 지역별 현황 및 사례공유

-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 공유

=> **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**

② 정책대응

- 마을공동체미디어기본법, 공동체라디오진흥법, 미디어교육법등에 대한 정책 대응

- 마을만들기, 사회적경제, 도시재생,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 등 정부 정책에 마을 공동체미디어가 중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응

- 정책대응을 위해선 관련 사항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

③ 참여주체 교류

-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 주체, 지역간 교류

-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

④ 정책연구

- 각 지역별 현황 및 사례 조사

- 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 효과 정리

- 정부정책 수립에 참조 될 수 있는 논리 개발

- 공동의제 발굴

=> 향후 논의를 통해 활동의 목표와 주요 이슈를 발굴해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.

전국적, 지역적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더 정기적으로 갖고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.

다만 논의만하다 끝나지 말고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임.